

교회 목표

신랄한 예배
친국인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전홍용 편집: 양재웅

복음으로 풍성한 잔치 2010년 제2차 청지기훈련

주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태복음 6:13)

대상: 모든 성도

일시: 6월 25일(금), 저녁 7시

강사: 김성관 위임목사

복음
The Gospel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이시다 ②

(고린도전서 10:1~4)

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7~39). 그리스도의 반석은 안전하다.

4. 그는 찬양 받으실 반석이다 그리스도의 반석에 기초한 사람들은 찬송한다(사 42:11).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이 없다면 회개해야 한다. "여호와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출 15:2). 우리의 노래와 세상의 노래는 분명 다르다(엡 5:18~19). 그리스도의 반석에 기초한 사람들의 찬송은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행 16:25).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 찬양하지도 않는다. 마땅히 찬양 받으실 그리스도께 드리는 성도의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 받으실 반석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견고한 반석이시며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는 참 신자에게 영원히 공급되는 힘의 원천이다. 그리스도의 반석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반석에 거하는 신자의 삶에는 찬양이 넘친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찬송하자(마 16:18).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과 교회가 세워지도록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자. "나의 반석, 구주 예수" 아멘.

*내일(7일)부터 매주 월요일(새벽 4:40)마다 '메시아의 죽음'을 주제로 위임목사님의 설교가 다시 시작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행 16:31).

구원을 받기 위한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행 4:12).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내가 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 15:14).

우리의 구주이시며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잔치가 열립니다.

바로 6월 25일 금요일찬양집회 시에

있을 제2차 청지기훈련입니다.

복음으로 풍성한 잔치에

충현의 모든 성도를 초대합니다.

PHARAOH

⁽¹⁾And afterward Moses and Aaron came and said to Pharaoh, "Thus says the LORD, the God of Israel, 'Let My people go that they may celebrate a feast to Me in the wilderness.'"

⁽²⁾But Pharaoh said, "Who is the LORD that I should obey His voice to let Israel go?

I do not know the LORD, and besides, I will not let Israel go."

(Exodus 5:1~2)

The Book of Exodus is a great book that reveals God's mercy. The theme of the book is a deliverance from Egypt, in fulfillment of God's promise. "God said to Abram, 'Know for certain that your descendants will be strangers in a land that is not theirs, where they will be enslaved and oppressed four hundred years. But I will also judge the nation whom they will serve, and afterward they will come out with many possessions'" (Gen. 15:13~14). God did everything in freeing the helpless Israelite slaves. He used His servant Moses to lead, deliver, and perform His mighty miracles for their deliverance. Moses, and his older brother Aaron, stood before Pharaoh and proclaimed. "Thus says the LORD, the God of Israel, 'Let My people go that they may celebrate a feast to Me in the wilderness'" (Ex. 5:1). Moses was God's chosen servant. He obeyed to God. Pharaoh was the king of Egypt. What kind of man was he?

Pharaoh was a man who rebelled against the plan of God. He answered Moses and Aaron. "Who is the Lord that I should obey His voice to let Israel go?" (Ex. 5:2). Pharaoh thought he was the greatest man in the world because he was the king over the greatest nation in the world. He didn't see anybody above him. God spoke and revealed His plan to Pharaoh, but Pharaoh went against God's plan. God's plan was to free Israel from slavery. God's plan now is to free us from sin. Pharaoh represents mankind through the centuries. God sent His servants, His Word, and His Son to us, but we still rebel against His plan. What is God's plan? God's plan involves our salvation.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Ac. 16:31). This part of the plan is very straight forward, but people still like to form different opinions. God's plan involves our obedience. "Has the LORD as much delight in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as in obeying the voice of the LORD? Behold,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o heed than the fat of rams" (1 Sam. 15:22). This part of the plan is simple, but people still don't listen. God's plan involves His will for your life. "For this is the will of My Father, that everyone who beholds the Son and believes in Him will have eternal life, and I Myself will raise him up on the last day" (Jn. 6:40). My dear friends, please don't rebel against God's plan. Pharaoh was blessed with power, health, and wealth, but he was against

God's plan. If you're blessed with health, knowledge, money or whatever please don't rebel against God because you think you're great.

Pharaoh was a man who rebelled against the person of God. He stated the condition of his soul to Moses and Aaron. "I do not know the LORD" (Ex. 5:2). He didn't know the Lord. He had no faith. How sad it is for someone not to know Jesus Christ? Pharaoh might have known things about the earth and its inhabitants, but he didn't know who the Creator is. Imagine those today who want to know astronomy, but not the One who made the stars. Imagine those who want to know music, but not the One who gives the song. Imagine those who want to know art, but not the One who creates beauty. Imagine those who want to know politics, but not the King of kings. Real believers know that in Jesus there is God. Jesus said. "You know neither Me nor My Father; if you knew Me, you would know My Father also" (Jn. 8:19). Do you know the Lord God? I'm asking you a direct question: Do you really know who Jesus Christ is? You can know the Lord by faith in Jesus.

Pharaoh was a man who rebelled against the people of God. He said. "I will not let Israel go" (Ex. 5:2). Not only that, but Pharaoh instituted stricter work requirements. "You are no longer to give the people straw to make brick as previously; let them go and gather straw for themselves. But the quota of bricks which they were making previously, you shall impose on them; you are not to reduce any of it. Because they are lazy, therefore they cry out, 'Let us go and sacrifice to our God.' Let the labor be heavier on the men, and let them work at it so that they will pay no attention to false words" (Ex. 5:7-9). Pharaoh didn't know that the Israelites were children of God. Those who love God must also love His people. Whoever rebels against the people of God will regret it later, because God loves His children. He will repay every good and bad deed.

My dear friends, let God have His way in your life. Please confess your faith in Jesus, love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soul, and love His people. Submission to God will always brings you satisfaction and joy. When you accept the plan of God, embrace the person of God, and care for the people of God, you acquire the eternal kingdom of God. Amen. 🙏

바 로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㉑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5:1~2)



김성팔 목사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타나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 곧 출애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 15:13~14).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던 이스라엘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으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은 바로 앞에 서서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출 5:1). 모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다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에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출 5:2). 바로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높은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생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바로는 수세기에 걸쳐서 인류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과 말씀,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계획에 반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행 16:31). 하나님의 계획은 매우 간단명료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의견들을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삼상 15:22).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여러분의 생명에 대한 그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 6:40).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바로는 권력, 건강, 부의 축복을 받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강, 지식, 물질 등의 축복을 받았다면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하여 하나님을 대항하

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을 방해하다

바로는 하나님의 종을 방해했던 자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그의 대답은 그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잘 말해 줍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출 5:2).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바로는 세상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창조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천문학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별들을 만드신 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음악을 공부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노래를 주신 분에 대해서는 알리고 하지 않으며 예술을 공부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분은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많지만 왕 중의 왕은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더라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 8:19).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막아서다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막아섰던 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שראל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 5:2). 그뿐만 아니라 그는 노역을 더 무겁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줄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르므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출 5:7~9).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백성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은 나중에 그 일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해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언제나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획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때,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

메시아의 죽음 30

고난을 시작하는 구절
(전환점)

것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임을 기념하며 그대처럼 어린 양을 잡고, 무고병을 먹었다. 바로 이 날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막 14:17 ~ 마 26:20), 유월 절의 떡과 잔이 각각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다(막 14:22~24). 동시에 옛 유월절 대신에 새로운 유월절의 시작을 알리셨다(막 14:25). 이 만찬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람 산으로 가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람 산으로 가셨다(막 14:26 ~ 마 26:30). 이것으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되었다. 이 모습에 대해 누가와 요한은 조금 다르게 기술하였다. 단순히 감람 산으로 가셨다고 하셨던 마가와 마테와는 달리 누가는 승관을 따라 감람 산에 가셨으며 제자들도 함께 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눅 22:39). 또한 요한은 감람 산이라는 명칭 대신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 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요 18:1).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송하며 고난이 시작되는 장소로 갔다는 점이다.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었다(히 2:12). 또한 이 찬송은 복음이 전파되었던 초대교회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계속되었다(행 16:25).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리니 굳게 결심하시고 …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 하는지라”(눅 9:51-53). 고난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은 인가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그 길임을 아셨기에 주변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아가셨던 것이다(눅 13:33). 예수님이 가진 곳은 세상에서의 인가와와는 전혀 상관없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 이 와 같이 항상 사람들에게 꺼려 하는 곳, 적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다(눅 17:11). 그러나 최후 승리는 고난의 길을 거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음을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밝히셨다(눅 22:14, 22, 30).

예수님의 고난은 유월절 만찬 후에 가셨던 감람 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제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잡혀 공회와 로마 법정에서 방제 심문과 고문을 받으신 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볼 때 예수님은 실패자다. 그러나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 출애굽을 위한 마지막 방법이 어린 양의 피(출 12:22)였던 것처럼 인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였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신 16:7). 우라가 가야 할 곳은 분명하다. 예수님이 찬미하며 가진 감람 산이다. 고난이 시작되는 그곳,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자기의 탐욕을 버리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자(느 13:9).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십자가 보살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회개하면 된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자.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나.” 아멘.

* 매주 월요일새끼기도회(새벽 4:40)에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죽음’ 요약(2)

‘메시아의 죽음’은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시키게 한다. 흔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는 복음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자.
(메시아의 죽음’의 말소는 2009년 9월 7일, 월요일 새벽부터 시작되어 매주 월요일마다 위임목사님이 설교하신다.)

14. 요한복음과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라고 한다. 이 세 복음서의 내용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거의 서로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복음서를 해석할 때 서로 대조해 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역사를 세례와 공생애, 수난과 죽음, 부활의 순서로 기록한다는 점에서 다른 복음서와 동일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15.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집이시다(요한복음과 마가복음 2)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찬미하고 감람 산으로 가셨다(막 14:26). 예수님과 제자들이 간 곳은 겟세마네였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다(막 14:32). 이것이 마가복음에 설명하고 있는 잠치시기 전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요한의 기록은 다르다.

16. 유대인들의 심문과 베드로의 부인(요한복음과 마가복음 3)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끌고 와서 심문하였다. 그리고 그 근처를 배회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의 설명은 다르다.

17. 빌라도의 법정(요한복음과 마가복음 4)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은 예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을 위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총독으로 있는 유대 지역의 안정을 위협할 뻔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이 아니었다(요 19:12).

18. 십자가에 죽으심과 장사 지냄(요한복음과 마가복음 5)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예수님이 매달리신 장소에 대해서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하게 기록하였다. 또한 예수님이 범죄자 사이에 매달렸다는 것도 동일하다. 다만 마가복음에는 ‘강도’(막 15:27), 요한복음에는 ‘다른 두 사람’(요 19:18)이라고 기술한 것만 다르다.

19.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동일한 사건에 대해 마태와 요한

의 기록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사건 자체에 대한 모순이라기보다 두 기자의 관점, 밝혀낸 바와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점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통해서 성경의 무모를 의심하는 이리혹을 범해서는 안 된다. 모든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리에서 지신 십자가다.

20. 예수님의 기도와 체포(요한복음과 누가복음) 누가는 기도하러던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요한은 그 간접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같은 흐름을 가지고 기술하였다. 예수님이 유다, 군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첨사람들에게 잡혔다고 요한은 기록하였다(요 18:3, 12). 누가의 설명도 거의 비슷하다(눅 22:52).

21. 유대인들의 심문과 베드로의 부인(요한복음과 마가복음 2) 유대인들의 심문을 받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부인에 관해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같은 방향을 가지고 비슷하게 기록하였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심문을 받는 장소가 대제사장의 집 돌임을 밝혔다(요 18:15). 누가는 동일하게 대제사장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였다(눅 22:54).

22. 빌라도의 법정(요한복음과 누가복음 3)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오셨다. 이 과정에 빌라도가 있다. 마태와 누가는 빌라도의 법정(관청)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요한은 요한복음 18~19장에 자세히 기록하였다.

23. 십자가에 죽으심과 장사 지냄(요한복음과 누가복음 4)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에 대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약간 다르게 기록하였다. 이마도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과 누가는 서로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았고 각각 다른 자료를 참고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24. 병행되는 사건들(진행되는 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다. 누가는 이 최초의 성찬식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였으며 성찬 후에 기룻 유디의 배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눅

22:21~23). 이에 반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기록했을 뿐 최초의 성찬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25. 비슷한 사건들(진행되는 순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는 각 복음서 기자들의 관점은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것은 아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비슷하게 기록하였다. 또한 누가와 요한이 비슷하다.

26. 다른 사건들(진행되는 순서) 사복음서는 메시아의 죽음에 관한 사건을 두고 약간 다르게 기록하였다. 이것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이다. 따라서 이것을 두고 사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조작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임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 특히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유대인이었던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메시아의 죽음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27.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마태·마가복음) 메시아의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대한 마태와 마가의 기록은 비슷하다. 마태복음은 25~26장, 마가복음 13~14장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각각 기록하였다.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은 마태와 마가 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셨다(마 25:31~33, 41; 막 13:1, 2, 25~27).

28.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누가복음)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하였다. 이 장에서 우리는 종교지도자들,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모습과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29. 고난 전의 이야기(요한복음) 공관복음서(마태·마가·누가복음)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전의 기사를 거의 끝부분에 기록하였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1장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암시했고, 2장부터 17장까지 곳곳에 고난과 관련된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복음의 씨앗, 은혜

2교구 1팀

빛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에 빛진 자로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선교지 땅에 복음을 증거케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의지와 계획으로 시작된 선교훈련 과정은 참으로 힘들었다. 그러나 선교지의 암울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 복음을 담담히 증거하였다.

설피 40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매일의 복음 증거 사역은 쉽지 않았다. 우리의 육신은 들판으로, 산골짜기로, 강가로, 아자나무 숲속으로, 옥수수 밭으로, 산골짜기 깊은 재석장으로 다니느라 고통스러웠지만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며 함께 한 동역자들에게도 감사하며 이 선교를 위하여 금식기도까지 작정한 교구 가족들과 총현의 성도들의 기도에도 감사드립니다.

(김정배(집사, 6교구))

- 우리는 마을마다 3조로 나누어 사역을 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듣는 자도 있고 아니 듣는 자도 있었지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성욱 권사)
- 기도하면서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걱정과 두려움에 싸여 있던 나 자신을 보며 많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영이시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안전한게 피하게 하셔서 복음을 건하게 하셨습니다. (박희숙 권사)
-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안전한 마을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안전한 곳에서도 예비해 놓으신 귀한 영혼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인 권사)
-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아 거부하는 영혼을 바라보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저 주님께 감사할 뿐! (석귀수 권사)
- 변경된 선교지의 사역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주님의 뜻이며 씨 뿌리는 자는 어디서든지 씨만 뿌리면 된다고 생각하니 선교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시어 말고, 선교지에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뿌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정택 안수집사)
- 이 복음의 씨앗이 당장 눈 앞에서 큰 결실을 얻지 못한다 하여도 결코 낙망하지 않게 해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인내를 가지고 복음 사역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마음소서. 아멘. (배판용 안수집사)

십자가의 은총

단기선교의 열매로 몸골에 세워진 현지인 교회에서 성례식이 있었다.

그들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였다.

그곳은 십자가 보혈로 가득했다.

- 작년에 학습 받은 후 세례 받기를 매일 기다렸다. 이 좋은 날 내가 새롭게 거듭나를 체험해 되어 너무 기쁘다. 나의 모든 죄와 악함이 보혈로 씻음 받고 용서받아 감사가 넘친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한다. (여인)
- 세례 받을 것을 며칠 전부터 많이 기다렸다. 오늘 아침에는 저녁 때 세례 받을 생각을 하며 기쁘게 일어났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달려왔다. 오늘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고 기쁜 날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참된 주님의 딸이 되는 날이다. 세례 받을 때 가슴이 떨리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친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복음을 잘 전하기를 진심으로 약속한다. (성명)
- 성찬예배와 세례식을 처음 보았다. 나는 학습을 받았다. 학습 받을 때 손등과 일어서서 서약한 대로 꼭 지킬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것이다. (대호)
-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빨리 세례를 받아 성찬에 참여하고 싶다. 이곳까지 찾아 오신 목사님 일행에 감사하다. (세희)
- 성찬식과 세례식을 보며 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 나를 만나 주실 것을 믿는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 (양현호)
- 주님의 임재를 느낀 기쁨의 잔치였다. 한 아버지, 엄마가 세례 받을 때 눈물이 나고 통곡하면서 눈물이 난다. 내 눈으로 70이 넘는 우리 할아버지가 세례 받고 구원받은 것을 보며 내 기도를 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했다. "명령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진실한 주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관자매)

(통골이번역 · 선교위원회)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4개 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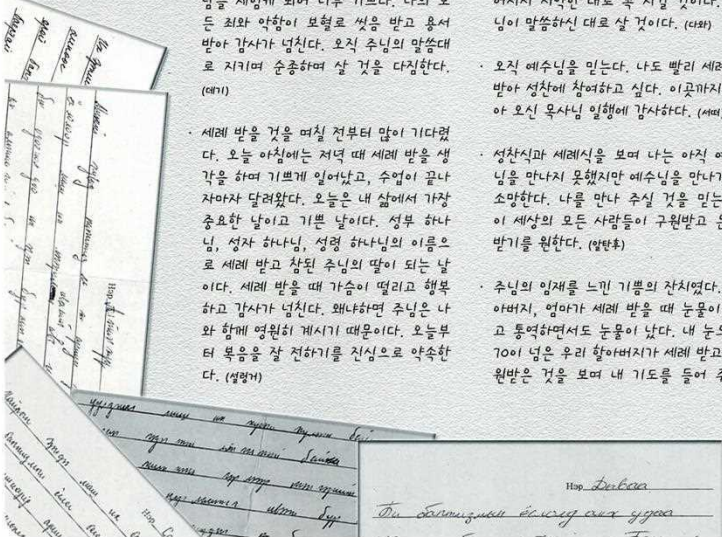
기 간	팀	팀 장
6월 7일(월) - 6월 15일(화)	11교구 2팀	김종규
6월 7일(월) - 6월 15일(화)	청년1부 2팀	허만선
6월 8일(화) - 6월 16일(수)	10교구 1팀	정문호
6월 9일(수) - 6월 17일(목)	6교구 2팀	최용길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3일(목) - 6월 11일(금)	16교구 1팀	문연식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25일(화) - 6월 3일(목)	13교구 1팀	김대용
5월 25일(화) - 6월 3일(목)	18교구 3팀	공석생
5월 26일(수) - 6월 3일(목)	5교구 2팀	김옥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

2010년 전반기 교육훈련원 증강



요나의 회개

하나님께서 인간과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나가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며 회개 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요나의 회개나 나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가요. 시골 조그마한 개척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믿을 생활을 시작하여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서기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은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제 욕심이 넘었지만 뒤돌아보면 너무나 세상의 안목과 물질에 현혹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김동희(집사, 수요성경공부 수료자)

"2010년 전반기 교육훈련원이 증강했다. 충현의 많은 성도가 수요성경공부, 교사·찬양대원 양성부, 충현전도대원 훈련 과정을 수료했다. 교육과정 수료증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

주 안에서 '한 몸' 이룬 가정을 꿈꾸며



가정·결혼·연애, 일명 '가결연'으로 알려진 청년1부 세미나가 지난 5월에 열렸다. 매년 열리는 세미나였지만 이번에도 역시, 가정·결혼·연애로 고민하는 젊은이들은 주님의 확실한 음성을 들었다.

취재·이현석 기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

고등학교 때부터 찬양대로만 섬기던 내가 교사를 하게 된 것은 대학부 같은 팀 선배의 추천 때문이었다. 교사라고 하면 정말로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는 오랜 고민 끝에 유치부 교사로 일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새로워서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다. 교사라는 직분이 왜 중요한지 몰랐고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몰라 점점 유치부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다. 물론 수업 참관을 하기도 했지만 그 선생님이 너무나도 잘 가르치셔서 '나도 저런 교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교사양성부의 과제물인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을 읽으면서 '나에게도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히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르치고 그 소출을 거두어 내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심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기도로 나아갈 때에 내게 맡겨 주신 5명의 귀한 어린 영혼들을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주 선포되는 공과 내용을 암기해서 가르치기에만 급급했던 나는 이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교육 내용을 깨닫고 마음에 큰 필름을 받아 기도한다. 또한 어린 아이들로 인해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나의 생각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왜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내게 맡겨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영혼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기도했다.

윤수정(성도, 교사 양성부 수료자)

주님을 제일로 사랑해서 찬송 부르는 사람

저를 사랑하셔서 충현교회에 다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찬양대원 양성부 교육을 받게 하신 주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본래 노래를 부르보다 더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 한다는 칭찬과 격려 속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피아노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노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주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주님을 믿으셨다면 저도 주님을 믿고 의지했을 터인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어서 저도 교회 다닐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한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교회 성가대에 오라고 인도하여 얼마간 교회를 다닌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부 찬양팀 반주를 하며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노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또한 노래를 제일로 사랑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제일로 사랑해서 찬송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꼭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의 삶을 죽을 때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조현주(성도, 찬양대원 양성부 수료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며 우리가 어떤 길로 갈지 모든 것을 아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사실임을 믿는다.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고민해 보는 좋은 시간이었다. '가결연'을 마치면서 자그마한 소망이 생겨났다.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귀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라는 자그마한 소망! (일배영)

아직까지 연애와 결혼, 가정은 저의 선택의 영역이었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가

지고 있던 많은 가치관과 바람들, 그로 인해 스스로 느끼는 정직함들. 범법한 아담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 연애, 결혼, 가정이란 부분에 있어서 지금껏 저는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에게 어떤 시간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듯이 결혼도 안 온전히 주님의 주권 하에 있으면, 돕는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상처와 모난 생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며, 내가 먼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경태)

처음으로 2주간 가정, 결혼, 연애에 대한 성경적인 세미나를 듣고 평소 애용하던 것들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며, 무엇이든 준비하고 기도하여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 동안 나는 '왜 내게는 배우자라는 멋진 남자가 안 나타나지?'라며 후덜덜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알 수 있었다. 세미나를 통해 공부한 말씀이 기억난다. "아담이 모든 가족과 공동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창 2:20). 이제 나는 메델의 관리인으로 충실했던 아담처럼 내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나의 소명을 묵묵히 행하며 살아 갈 것이다. (나지혜)

새가족양육부 5월 수로자

예수, 나의 구세주!



✦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구원에 주셨다. 성경에 대해 알게 되었고 성경 말씀이 나에게 많이 와 닿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 (김소연)

✦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날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성경을 더욱 열심히 읽고, 교회에 나올 때 문제되는 것이 없기를, 그리고 남편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한영정)

✦ 예수님의 은사로 구원받았음을 알았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 공부기 마음함으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 것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겠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김영희)

✦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시다. 앞으로 주일에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잘 하고 싶다. 그리고 교구와 장년부에서 교육을 받고 싶다. 차량안내부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딸이 건강하여서 교회에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 (정두익)

교역자 동정

장 훈 목사님이 군산지평선교회(군산시 나운동 소재)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가십니다. 그동안 장훈 목사님은 교구를 비롯하여 각 부서에서 만 7년 8개월(2002.10.1.~2010.6.13.)

동안 신실하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모든 성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죄인이란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한 집사님의 전도로 지난 1월에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입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직장과 가정을 오가며 종중거리며 성실하게 살고 있었지만 늘 제 마음에는 공허감이 있었습니다. 제 삶의 지표 삼을 모델을 주변에서 찾으며 정신적인 방황을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가족양육부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평생 동안 만나고 싶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 제 마음에 평화와 찾아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제가 죄인이란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았고 남한테 해를 끼치며 산 적이 없으며, 되도록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이야?" 하면서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화났을 때 무심코 상대방에게 던진 말이 가련 울음 말일지라도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죄인이란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남편에게 상처를 준 말로 지은 죄는 저를 무척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30여 년을 함께 한 남편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도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받는 동안 기도예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은혜도 받았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많이 사랑하시는 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도 너무나 많은데 이처럼 많은 선물을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남궁경진(성도, 새가족양육부)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603	정기희	20 대학부	정이숙(22)	635	최형근	24 고등부	장인호(24)
604	송홍준	19 장년2부	채은미(5)	636	김영훈	3 청년1부	이명빈(14)
605	안용재	21 장년1부	안용희(21)	637	권자현	8 중등부	김미영(8)
606	임명실	11 장년1부	김영순(1)	638	김정현	1 대학부	이민숙(10)
607	황정환	19 대학부	김수민(2)	639	이재민	11 장년2부	이명신(14)
608	장소희	1 청년1부	강국현(1)	640	김정숙	2 고등부	이정민(3)
609	박지효	17 중등부	신형진(1)	641	황민서	7 초등부	김선미(9)
610	전지훈	1 청년2부	신영준(1)	642	심지민	7 초등부	이정연(22)
611	신태일	14 장년3부	박지훈(2)	643	홍초예은	25 외신부	신재성(2)
612	박성국	24 장년1부	조용국(14)	644	김강민	8 고등부	김미애(8)
613	최수진	17 중등부	안태환(20)	645	임광호	22 장년1부	조용재(22)
614	원종서	14 중등부	최금중(2)	646	김형기	18 장년2부	강준희(18)
615	황영민	10 중등부	강학점(10)	647	김성진	13 청년1부	지아연(16)
616	이성준	15 중등부	태일환(2)	648	남동훈	22 장년1부	최영민(10)
617	서미룡	17 청년1부	장구환(21)	649	지은영	10 중등부	이대영(1)
618	유현준	21 장년3부	문한숙(22)	650	김재민	1 대학부	박재현(11)
619	전승환	19 장년3부	전향숙(19)	651	고다원	10 유치부	김재민(1)
620	신혜원	5 대학부	변혜원(5)	652	황희연	11 대학부	조영환(11)
621	김정규	5 대학부	김재현(4)	653	민정하	17 청년1부	조영환(11)
622	변미애	21 청년1부	박형숙(10)	654	이대성	21 청년1부	김성환(10)
623	김진희	6 청년1부	홍은진(2)	655	윤재민	6 대학부	이태훈(1)
624	조대식	5 청년2부	김성혜(22)	656	김재환	23 청년1부	유옥환(17)
625	강광성	6 장년2부	전진숙(16)	657	이덕애	1 장년2부	강신순(1)
626	신재성	3 초등부	송금숙(5)	658	전지수	12 대학부	예지희(17)
627	신예서	3 초등부	김유영(12)	659	노병환	20 대학부	이현준(20)
628	김진주	8 중등부	김예원(8)	660	이희준	22 장년2부	김민하(18)
629	김유진	3 대학부	송형자(7)	661	최민서	20 청년1부	이명환(5)
630	최효상	6 청년2부	김예원(2)	662	김정현	17 장년1부	남은희(11)
631	박연희	11 장년2부	김예원(21)	663	김진미	11 청년2부	이성희(11)
632	임성근	7 장년3부	윤병식(8)	664	오상주	17 장년2부	박성호(20)
633	김민국	16 대학부	김경(16)	665	민	15 외신부	김지진(7)
634	이미연	7 장년1부	이수연(8)				

* 순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